

허물과 죄에 빠뜨린 사탄의 무릎을 꿇린 하나님의 방법

- 복음으로 여는 에베소서 -

창세기 1:1-6, 에베소서 2:1-10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저희들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과 만남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높고 깊고 넓은 뜻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에베소서는 사도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 상태일 때 기록한 성경이다. 보통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감옥에서 사도바울은 굉장히 축복받는 시간을 누렸다. 시역 전체를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교회로 뿌리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누렸다. 그래서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이다. 이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이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두기고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도 두기고와 같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린다. 복음을 전한 소아시아, 현재의 터키인 지역인 에베소 지역은 사도바울이 전도사역의 모델적인 시스템을 완성한 현장이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나로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테살로니기에서 아손을 만났으며 아텐에서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를 실패했다. 제자가 전혀 안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고린도교회에서는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졌다. 그 경험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돌아가면 조금해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보내시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 응답을 따라서 에베소 사역을 하다가 두란노 지역에서 제자를 따로 세워 양육했다. 시간이 지나니 에베소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고, 소아시아와 결국에는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다. 에베소에서 핍박을 받아서 피해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모델적인 응답을 받은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성공적인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도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잘 했기 때문이고 그 때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에베소서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서신으로서 보냈다고 말한다. 고린도전후서는 지역의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회람, 돌리면서 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용이 보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린도교회에는 ‘너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회개하고 고쳐라.’ 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더 깊은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영접할 수 있다. 1분 만에 영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깊이를 가지고는 신앙의 여정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RU를 만들어 신학공부 하라고도 한다. 사도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바울의 모든 신학적 역량을 모아서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베소서를 요약한 것이 골로새서이다. 이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셔서 이 복음의 높이, 깊이, 넓이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에베소교회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이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권하고 있다.(4-6장)

1. 먼저 에베소서에 나타난 사탄과 전략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지금도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들며, 죄를 짓게 만들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있었는데, 사단이 그것을 틈탄 것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디락방을 제대로 안했나보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 가정 중 한명만 영적으로 서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된다. 여기서 ‘허물’의 원 뜻은 ‘파랏도파로,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 한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인지라.’ 이 선악과를 지난 주에 몇 개 따먹었다고 물으니가 한 박스 따먹었다고 한다.(웃음) 옛날 에덴동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2) 인간을 멸망시키고자하는 사탄의 방법은 이 세상에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 인간들이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무속 점술 우상이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어머니마한 신전이 있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인간들을 조종 할까? 악한 사탄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을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종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다. “성령이 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 못하지만 무당이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해더라. 신내림 곳을 하면 무당이 된다. 그 이후로는 그 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 대단하다. 성령 받았는데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웃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너무 주셔서 그렇다.(웃음) 이 자유의지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란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탄의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악한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이며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기도고 방송을 보는데 귀신들린 청년이 아버지가 사업가, 어머니는 한의사여서 어렸을 때부터 늦게까지 혼자였다고 한다. 어느날 귀신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로 밖에서 노크소리가 들려서 가보면 아무도 없고, 책장이 쏟아져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떤 행상이 보이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루는 침대에 누웠더니 누가 옆에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너 누구야? 하나가 ‘내가 불렀잖아.’” 했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귀신과 대화했다고 한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이 들리는 일도 생겼다고 한다. 어머니가 책을 읽으라고 책을 줬는데 시주, 팔자, 관상에 대해서 한자로 글씨 써 있는데 그 책이 그렇게 재미있게 술을 읽었다고 한다. 군대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하는 중에, 잘 해주는 선임이 있었다. 귀신 들려서 혼자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지 못했는데 그 선임이 너무 고마워서 시주를 봐주겠다고 하니, “성경에 보면 점 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망한다고 나와있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점술과 관한 책을 다 찢어버리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청소년이 SNS에 꿈에 귀신이 자주 나타나서 짜증난다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 댓글에 욕하면 귀신 없어진다고 누가 단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청소년이다. 그러한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건져내야 한다.

(3)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면 인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사도바울은 복음의 체질로 변하기 전의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완전히 육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내용을 살펴보자.

- 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살았던 것이다.
- ②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술, 담배, 도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육체의 정욕 따라, 쾌락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망하는 길이지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인간들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 ③ 다음 문장을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불신자시절의 영적인 상태와 신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때 그들의 영적인 신분은 마귀자녀요,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더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2. 에베소서에서는 인간을 구원하시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새 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1)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말씀인 에베소서 1장 4절이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의 내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수준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창세전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인 것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해야 한다. 에베소서 1장 5절이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 사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예정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고자 한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세 전에 작정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시간표를 주신 것임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영세 전에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전혀 안 주신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 예정,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예정이 인정되고 수용되어져서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머리로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믿어진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성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서 이해가 된다. 우리 IQ로는 이해가 절대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줄 알기를 바란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2)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이다. 이것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랑 할 수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9절 말씀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4) 사탄을 무릎 꿇게 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에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이다. 이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6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와 오늘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전도자의 삶인 것이다.

① 에베소서 4장 2절이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가 다 되는 성경구절이다. 이해는 되지만 잘 되지는 않는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이해 안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다.

②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에베소서 4장 3절이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9가지 포인트에 계속 도전해야 한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강단메시지를 붙잡으면 어느 순간 체질, 생각이 바뀐다. 우리의 생각, 틀에서 성경 말씀의 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우물중에 걸린 사람은 우물하다. 성경의 새 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이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분들은 성경의 틀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참된 승리할 줄 믿는다. 사탄의 무릎 꿇리는 방법이다.

③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8절이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5장 3절이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알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트릴지 목상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겠는가?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나머지는 열매 맺게 되어있다. 그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5

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아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필요할 때는 잘못된 부분도 책망해야 한다. 엡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22절, 5장 25절, 6장 1절이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5절-6절은 직장 생활하는 방법이다.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기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생활 할 때도 상관이 악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7명의 램프들이 했던 모습이다.

(5) 이 땅에서 사탄을 이기고 모든 것을 회복할 하나님의 유일한 조직이 교회이다. 교회가 회복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충만해진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나'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바른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 땅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줄을 믿는다. 역사상 종교개혁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은 지금도 잘 되고 있다. 그 응답을 이 나라, 이 민족이 받게 될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 방법은 복음적인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면 영육간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충만해 질 것이다.

(6) 사탄의 역적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3절-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무엇인가. 전도 현장이 평강히 편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한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편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16절-17절이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모든 주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들의 CVDIP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미루리 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가장 확실한 구원의 언약은 영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 중에 언약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 영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고 섭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237 나라에 전할 비전을 주신 것이다.
2. Vision 이다. 우상의 중심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었던 것처럼 237나라에 에베소교회와 같은 선교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겠다.
3. Dream 이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참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24시간 도전하기를 바란다.
4. Image 이다. 사도바울을 에베소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모델적인 교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주소서. 내가 지금 멀리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기본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주소서.' 계속 기도하니까 메시지가 나온 것이며 그 메시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낸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 후대, 업,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기를 바란다.
5. Practice 이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 만약 우리들이 날마다 복음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목상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올리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나의 인간적인 모든 틀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